

ASK 2017 릴레이 인터뷰 ① 스테판 크라우치 ILS어드바이저스 대표

(대재해채권)

“재해보험에 투자하는 ‘캣본드’ 투자위험 분산에도 최적”



분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투자 자산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지진·쓰나미 등 재해보험 상품을 유동화한 보험연계증권 인기

펀드 10년 평균 수익률 年 6.3% 세계시장 89조원 규모로 급증

이다. 대재해채권(캣본드-catastrophe bond)이 대표적이다. 지진 쓰나미 홍수 등 자연재해 관련 보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ILS와 글로벌 주식 시장 간 상관관계는 0.2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두 개의 투자 자산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관계수는 -1과 1사이 숫자로 표시된다.

회사채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수는 0.7, 헤지펀드와 주식은 0.8, 부동산과 주식은 0.67이다.

크라우치 대표는 “ILS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LS의 경우 3.2로 글로벌 주식

(0.3)이나 국제(0.5), 회사채(0.7)를 압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보험회사들의 주가는 46% 하락하는 가운데 대재해채권은 오히려 2.28%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200억달러(약 22조원)를 맡았던 전 세계 ILS 시장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780억달러(약 89조원)로 급증했다.

ILS어드바이저스는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전 세계 ILS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회사다.

유형재 기자 yooocool@hankyung.com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가 총출동

‘ASK 2017-글로벌 사모·헤지펀드 서밋’ 17~18일 개최

국내의 기관투자자와 운용전문가들이 모여 대체투자 분야의 성공 투자 기법을 모색하는 ‘ASK 2017-글로벌 사모·헤지펀드 서밋’이 오는 17-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

첫날은 사모펀드(PEF) 사모부채펀드(PDF) 등 사모투자 포럼, 둘째날은 헤지펀드 및 멀티에셋 포럼으로 나뉘어 열린다.

헤지펀드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비롯해 헤지펀드 투자에 중요한 매수-매도 등 포지션 기반 위험관리 등 선진 투자 기법이 제시된

ASK 프로그램

Table with 2 columns: Session/Topic and Speaker. Includes sessions like '미국 선순위 대출', 'GP 관점의 공동투자', '유형 ABS', etc.

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asksummit.co.kr)나 ASK포럼 사무국(02-360-4209)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젬백스, 골프웨어 업체 인수 후 IPO 추진

(크리스에프앤씨)

인수한 필링크 통해 M&A 154억에 회사 2곳 인수 '수확' 상장으로 투자금도 조기 회수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젬백스 테크놀로지(이하 젬백스)가 무선인터넷 서비스 업체 필링크를 인수하자마자 이 회사를 통해 핑(PING) 파키게이지 등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크리스에프앤씨를 사들이기로 했다.

3월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젬백스는 필링크를 통해 다음달 15일 크리스에프앤씨 지분 63%를 175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IB 업계는 젬백스가 크리스에프앤씨를 인수할 목적으로 필링크를 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젬백스는 필링크의 내부자금으로 크리스에프앤씨 인수 계약금을 냈다. 젬백스가 필링크 인수를 위해 지급한 유상증자 대금도 이번 인수에 동원된다.

IB 업계 관계자는 “젬백스는 CB 등 채권성 투자를 제외한다면 필링크 유상증자 대금(154억원)으로만 필링크와 크리스에프앤씨를 모두 인수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젬백스가 투입한 154억원도 크리스에프앤씨의 IPO를 통해 조기 회수할 전망이다.



젬백스는 내년 말을 목표로 인수금융을 지원한 KB증권 등과 크리스에프앤씨 상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에프앤씨는 부부인 운전화 전 대표와 우진석 사장이 1998년 설립한 의류업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손실제한 ETN 출시 한 달...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

(상장지수증권)

하루평균 거래대금 6767만원 '상품 어려워 관심 못 끌음'

원금 손실을 제한하는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ETN)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거래 실적은 초라하다.

ETN은 지수와 수익이 연동되는 파생 결합증권이다. 2006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도 불구하고 거래는 부진하다. 지난달 28일까지 3조6783억원어치의 ETN이 발행됐지만 이 중 판매된 것은

1281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10억원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ETN시장을 키우기 위해 지난 3월27일 원금 손실을 제한하는 상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반응은 미지근하다.

손실제한형 ETN은 만기 시점에 기초지수가 하락해도 최소상환금액(70% 이상)으로 설정이 지급된다.

상품이 어려워 투자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TN을 발행·판매하는 증권사들도 적은 수수료 탓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마스크팩용 부직포 1위 피앤씨산업 매물로

국내 1위 마스크팩용 부직포 생산업체인 피앤씨산업이 매각을 추진한다.

3월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피앤씨산업은 최근 삼성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다수의 국내외 사모펀드(PEF)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했

다. 이 회사 창업주인 손철재 대표(지분율 71%)와 국내 벤처캐피탈인 HES캐피탈파트너스 등이 보유한 지분 100%를 매물로 내놨다.

100%)를 약 400억원에 사들였다.

피앤씨산업은 2008년 출범한 회사로 국내 마스크팩용 부직포 시장 점유율이 60%를 웃돈다.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이 회사는

올해 초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서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JEI 재능교육 광고. '결과가 뻥한 출발'을 주제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묻는다. '재능 S.S.R.O 수학'을 강조하며, '재능수학'을 검색해 보세요.